

캐나다 농산업 및 교역 현황*

남대희·임정빈

1. 캐나다의 농업 여건 및 주요 농성

1.1. 농업 여건

캐나다는 한반도의 46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면적(9억 9,800만 ha)을 지녔으나, 국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수(2010년 3억 400만 명)는 적은 나라이다. 하지만 1인당 GDP(4만 6,000달러(USD))가 OECD 회원국 중 7위에 해당하는 경제대국이다. 이러한 캐나다의 농업과 농식품 산업은 국가 전체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농업과 농식품 산업은 국가 전체 GDP 중 약 8.1%(2010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산업 분야에서 21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되고 있다. 특히, 식품 제조업의 경우 금융 산업, 여타 제조업과 함께 캐나다 연방 및 주(州)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캐나다의 농경지 면적은 6,760만 ha로 전체 국토면적의 약 6.8%에 불과하며, 기후여건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이 남부 국경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2010년 약 6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에 불과하며, 최근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하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농업생

* 본 내용은 캐나다의 농업 및 농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박사과정 남대희와 임정빈 교수가 작성하였다(dagaeda@snu.ac.kr, 02-880-4731, jeongbin@snu.ac.kr, 02-880-4721).

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대부분의 농가가 고도의 전문화, 과학화된 대형 가족형 농가형태를 띠고 있어 캐나다의 세계 유수의 농업국이 될 수 있었다.

캐나다는 2009년 농식품 수출액이 314억 달러(USD)로 농식품 수출 대국 중 하나이며, 국가 전체 수출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국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캐나다의 대표적 작물인 밀(Wheat) 수출량은 미국과 호주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농산물 수출은 미국 시장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최근 수출 판로의 다변화가 캐나다 농정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표 1 캐나다의 주요 경제 및 농업 지표

	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국토면적(A)	1,000ha	998,467	998,467	998,467	998,467	-
농경지면적(B)		67,587	67,600	67,600	67,600	-
농경지면적 비중(B/A)	%	6.77	6.77	6.77	6.77	-
인구(C)	1,000명	32,628	32,977	33,328	33,675	34,017
농촌거주인구		6,450	6,487	6,531	6,577	6,620
농업종사자(D)		685	671	657	644	631
농업종사자 비중(D/C)		%	2.10	2.03	1.97	1.91
GDP	백만 US달러	1,278,611	1,424,066	1,502,678	1,337,578	1,577,040
농업 부가가치		22,492	24,129	26,403	23,442	24,443
1인당 GDP	US달러	39,250	43,246	45,100	39,656	46,212
농식품 수출액	십억 US달러	25.0	29.8	37.3	31.4	-
농식품 수입액		19.6	23.1	26.1	24.8	-
농식품 교역수지		5.3	6.7	11.2	6.6	-

자료: FAO Stat(www.faostat.fao.org), UN data(www.data.un.org), OECD(www.oecd.org).

캐나다의 2006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지면적은 1986년 약 6,780만 ha에서 2006년 약 6,760만 ha로 소폭 감소한 반면, 동기간 농가당 경지면적은 231ha에서 295ha로 크게 증가하였고, 농가 수는 29만 3,089호에서 22만 9,373호로 감소하였다. 이는 캐나다의 농가가 점진적으로 전문화·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캐나다 전체 농가소득은 국제적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8년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캐나다의 전체 농가소득은 약 444억 달러(CAD)¹⁾이며, 이 중 정부의 직접지불금(Direct Payments)은 약 31억 달러로 전체 농가소

1) CAD(Canadian Dollar)로 본 자료의 가격단위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캐나다 달러를 의미한다. (1\$(CAD) = 0.96\$(USD), 2012년 6월 1일 기준).

득에서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농산물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자국보다는 수출대상국의 농업 정책과 국제 농산물 가격 변동 등의 외부적 환경변화에 농가소득이 크게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농업소득 안정화가 캐나다 정부 농정의 핵심과제이다.

표 2 캐나다 농가소득 현황

단위: 백만 달러(CAD), %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업소득(A)	32,537	36,786	41,805	41,256	41,305
직접지불금(B)	4,534	4,093	4,132	3,290	3,134
농가소득(C=A+B)	37,071	40,879	45,937	44,546	44,439
직불금 비중(A/C)	12.2	10.0	9.0	7.4	7.1

자료: 캐나다 통계청(www.statcan.gc.ca).

캐나다 전체 농가의 순소득은 2006~2010년 동안 평균 약 80억 달러 규모였으며, 농업 투입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 경영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캐나다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곡물(밀)과 유채(카놀라)의 국제시장 가격이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캐나다 농가소득 전망

		단위	2006-2010 평균	2011(p)	2012(p)
농가 전체	농업소득(A)	백만 달러 (CAD)	38,769	45,855	46,948
	직접지불금(B)		3,837	3,694	3,033
	농가소득(C=A+B)		42,606	49,549	49,981
	농업 경영비(D)		34,613	37,815	38,743
	농가 순소득(C-D)		7,993	11,734	11,239
농가 호당	농업 순소득(평균치)	달러 (CAD)	42,051	65,129	63,555
	농가 총소득(평균치)		97,331	118,970	123,498
	순자산(평균치)		1,292,572	1,604,740	1,682,500

주: 2011년과 2012년 농가소득은 전망치임.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12, Canada's Farm Income Forecast for 2011 and 2012.

1.2. 주요 농정

캐나다의 주요 농업정책은 캐나다 헌법 아래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2003년부터 5년 동안 APF(Agricultural Policy Framework)에 따라 실시되어 왔다. 2008년 7월 차세대 농업정책(Growing Forward Framework)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고,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정책 프로그램별 예산 집행, 세부 정책 시행 내용 등의 협의를 통해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캐나다 차세대 농업정책 중 주요 농가지지 정책은 크게 농가소득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자가 새로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 저축을 보조하는 농업투자계정(AgriInvest)과 농가소득 감소분을 일정 보조하는 소득안정계정(AgriStability), 자연재해 등을 보상하는 농업보험(AgriInsurance)과 농업구호제도(AgriRecovery) 등 농가경영 위험 관리(BRM, Business Risk Management)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투자계정은 총 판매액에서 제도가 허용하는 변동비용을 제외한 인정소득의 1.5%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정부는 그 금액만큼 보조로 별도의 기금을 예치하고 생산자는 이 펀드를 이용하여 소득변동 완화나 새로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소득안정계정은 해당 연도의 수입이 기준소득(과거 5년간 평균)의 85~70%까지 하락(정부:생산자 부담 비중=7:3)하거나, 혹은 70%를 못 미칠 경우(정부와 생산자 부담 비중=8:2)에 이에 대응하여 정부가 일정 보조하는 제도이며,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농가의 부담 없이 정부가 마이너스 소득의 60%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농업보험은 호우, 우박, 서리, 가뭄, 화재, 홍수, 풍해, 산사태 등의 피해에 대해 주마다 생산되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보험료는 보험요율, 담보수준, 평균생산량, 보험 대상 작물의 평균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보험금은 실제 수확량이 선택된 보장수준에 의해 조정된 평균생산량보다 적을 경우 지불하게 된다. 농업구호제도는 특정 자연 재해로 인한 소득 감소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피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조치이며, 지원이 다른 사업이나 민간보험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채광석, 2011).

캐나다 차세대 농업정책은 지역별 농가소득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보다 유연하게 정책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지역별 정책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 정책 중 하나가 농가의 환경적·경제적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BMPs(Beneficial Management Practices)로 주정부가 지역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연방정부에 요청하고, 연방정부가 예산을 확정 편성하는 제도가

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지역의 정책적 수요에 따라 BMPs와 농가지지 정도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정책의 유연성이 향상되었다.

표 4 캐나다의 농업보조 추이

단위: 백만 달러(CAD), %

	1986-88	1995-97	2008	2009	2010(p)
농업 총생산액(농가기준)	18,458	27,549	42,287	41,140	40,245
생산자지지추정치(PSE)	7,940 (100.0)	4,896 (100.0)	5,953 (100.0)	7,672 (100.0)	7,655 (100.0)
정부 재정 지출(BP)	3,825 (48.2)	2,600 (53.1)	3,218 (54.1)	3,308 (43.1)	2,990 (39.1)
%PSE	35.7	16.3	13.1	17.3	17.7
▶ 생산량과 관련된 지원	4,591 (57.8)	2,465 (50.3)	2,737 (46.0)	4,364 (56.9)	4,665 (60.9)
- 시장가격지지(MPS)	4,116 (51.8)	2,296 (46.9)	2,735 (45.9)	4,364 (56.9)	4,665 (60.9)
- 생산량 기준 지불	476 (6.0)	169 (3.4)	2 (0.0)	0 (0.0)	0 (0.0)
▶ 투입재 보조	1,396 (17.6)	692 (14.1)	528 (8.9)	483 (6.3)	458 (6.0)
▶ 직접지불 (현재 면적, 가축두수, 조수입, 소득기준)	1,787 (22.5)	840 (17.2)	1,794 (30.1)	2,285 (29.8)	2,044 (26.7)
▶ 직접지불 (과거 면적, 가축두수, 조수입, 소득기준, 단 생산요구)	0 (0.0)	0 (0.0)	137 (2.3)	17 (0.2)	396 (5.2)
▶ 직접지불 (과거 면적, 가축구수, 조수입, 소득기준, 단 생산불요구)	0 (0.0)	790 (16.1)	719 (12.1)	217 (2.8)	7 (0.1)
▶ 품목불특정 지불	10 (0.1)	0 (0.0)	0 (0.0)	285 (3.7)	57 (0.7)
▶ 기타 재정 지불	155 (2.0)	109 (2.2)	38 (0.6)	21 (0.3)	29 (0.4)
▶ 일반서비스 지원(GSSE)	1,920	1,997	2,901	3,300	3,202
- R&D	332	418	393	460	477
- 검역·검사 서비스	274	262	257	254	257
- 농업 인프라	327	358	864	955	943
- 마케팅 및 홍보	438	325	564	448	601
- 공공재고	549	633	823	1,183	924

자료: OECD, 2011,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1.

캐나다의 시장가격지지 정책은 관세와 생산할당(Production Quota) 제도에 의해 낙농 제품과 가금류, 달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캐나다 주요 농작물인 밀과 보리의 국내 공급 및 수출에 관해서는 캐나다 밀 위원회(Canadian Wheat Board)가 법적 권한을

부여받고 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생산자에게 다양한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OECD의 농업생산자지추정치(Producer Support Estimate, PSE)²⁾ 지표에 의하면, 캐나다의 농업지지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자 총 수취액 중 농업지원액(일반서비스 재정 지출 제외) 비중을 나타내는 %PSE의 경우 캐나다는 2010년 17.7%로 OECD 평균치인 18.3%보다 낮으며, 이는 우리나라(44.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생산과 무역 왜곡적 효과가 큰 시장가격 지지(MPS)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캐나다의 경우 농산물 주요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MPS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MPS:BP= 87.2:12.8)을 포함한 농산물 수입국들은 PSE 구성요인 중 MPS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미국(5.9:84.1), 호주(0.7:55.3), EU(15.2:84.8)와 같은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국은 BP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나, 2010년 캐나다의 PSE에서 MPS와 BP가 차지하는 비중이 60.9:39.1로 MPS의 비중이 OECD 평균(44.7:55.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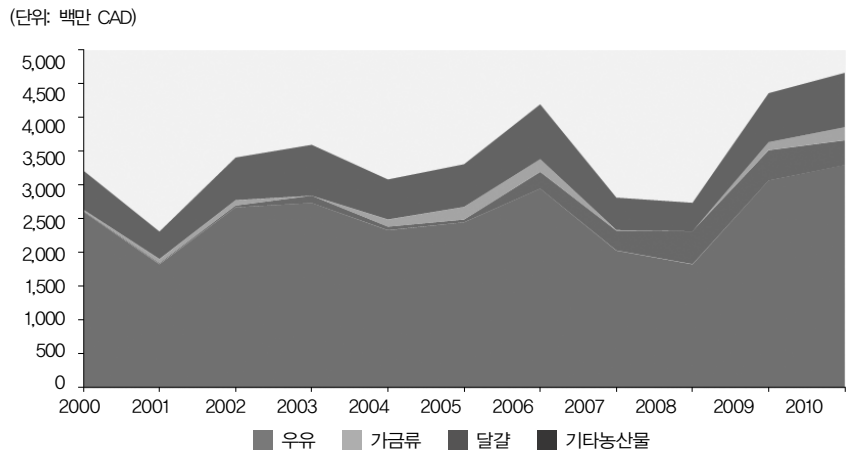
캐나다의 MPS 주요 대상 품목은 우유(32억 9,900만 달러), 가금류(3억 6,700만 달러), 달걀(1억 9,400만 달러)이며, 2010년 이들 3가지 품목이 전체 MPS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7%로 2008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MPS에서 우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유제품 국내 수요 및 계획적 수출을 위해 필요한 가공 원료유가 부족하거나 초과되지 않도록 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1970년대 초반 도입한 우유공급관리정책 때문이다. 캐나다의 우유공급관리정책은 1970년대 우유의 수급 불안정과 낙농 관계자 간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캐나다의 우유공급관리정책은 크게 가공 원료유의 가격지지, 우유의 공급 관리, 관세할당제도의 의한 유제품 수입규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원태, 2011)

2) OECD는 회원국의 시장지향적인 농업정책 개혁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농업생산자지추정치(PSE)를 매년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PSE는 정책수단의 성격, 목적, 농가생산 및 소득 등에 대한 영향에 관계없이 농업지지 정책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와 납세자로부터 농업생산자에게 이전된 농가판매단계의 연간 총 화폐가치 지표로 정의된다. PSE는 크게 국내외 가격차로 인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시장가격지지(MPS)와 정부재정(혹은 납세자)으로부터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정부 재정 지출(BP) 부문으로 구분된다.

· 생산자지추정치(PSE)= MPS(국가 전체 MPS) + BP(재정 지출) · MPS=Σ표준품목 MPS / 농업 총생산액에서 표준품목 생산액의 차지 비중 · BP=Σ여러 유형의 재정 지출 + 생산자에 대한 조세 및 부과금 감면

· 정부 재정 지출(BP) 대상 항목: ① 생산량 기준 지출, ② 투입재 보조, ③ 직접지불(현행 면적, 가축두수, 조수입, 소득기준), ④ 직접지불(과거 면적, 가축두수, 조수입, 소득기준, 단 생산요구), ⑤ 직접지불(과거 면적, 가축두수, 조수입, 소득기준, 단 생산불요구), ⑥ 품목불특정 지출, ⑦ 기타 재정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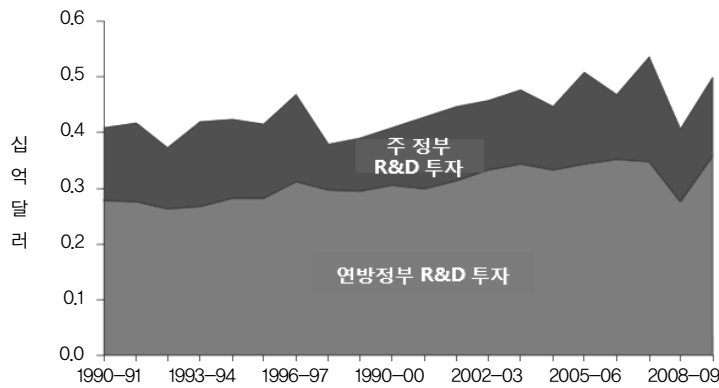
그림 1 캐나다 품목별 MPS 변화 추이



자료: OECD, 2011,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1.

최근 캐나다 정부는 연구개발, 농업 인프라, 마케팅 및 홍보 등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일반서비스 분야의 지원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캐나다 정부의 농업 및 농식품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R&D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2007~2008년(회계연도 기준)에는 약 5억 3,600만 달러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었다.

그림 2 캐나다 정부의 농업 및 농식품 분야 R&D 투자 추이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11, An Overview of the Canadian Agriculture and Agri-food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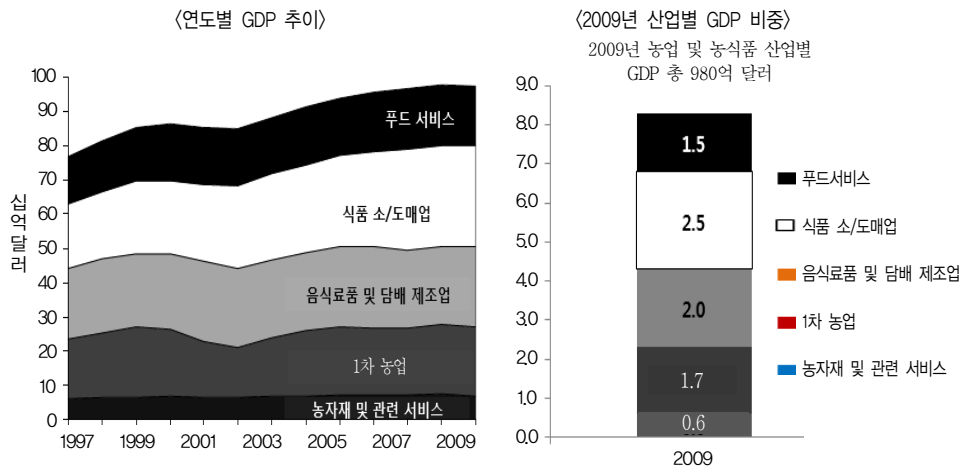
캐나다의 농업 및 농식품 산업 분야 R&D 투자는 대부분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 R&D 투자는 주로 산학 간의 파트너십 제고 및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산업화에 집중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 육성, 지식기반(Knowledge-based) 농업 생산시스템 구축, 농가경영 리스크 축소, 농업 및 농식품 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R&D 투자를 주요 정책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친환경적 농업 생산 등이 주요 정책 아젠다로 부상하면서 농업분야의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R&D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분야 기후변화 영향 평가, 탄소 저감형 농업 생산시스템 개발, 생물다양성 및 자연 생태계 보존, 안정적 수자원 확보 등을 주요 R&D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이다.

2. 캐나다의 농업 및 농식품 산업 연망

2.1. 농업 및 농식품 GDP

캐나다의 농업 및 농식품 산업은 국가 전체 GDP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 분야이다. 2009년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 산업 GDP는 총 980억 달러

그림 3 캐나다의 농업 및 농식품 산업 분야별 GDP 추이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11, An Overview of the Canadian Agriculture and Agri-food System.

러 규모로 국가전체 GDP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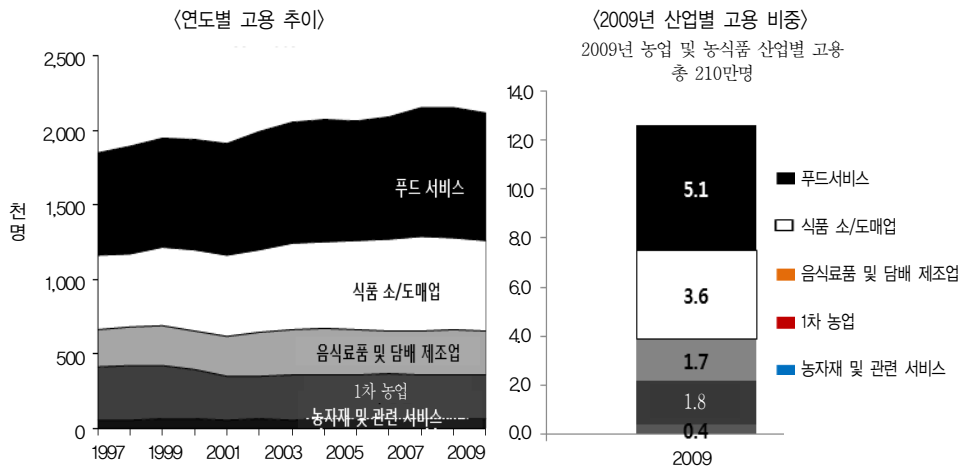
캐나다의 농업 및 농식품 산업에서 1차 농업분야(1.7%)는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지역GDP에서 농식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차 농업분야를 추월하고 있는 추세이다. 캐나다 농업과 농식품 산업은 시장접근성과 기후여건 등으로 인해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온타리오(Ontario), 퀘벡(Quebec), 앨버타(Alberta) 3개 주가 캐나다 전체 농업 및 농식품 산업 GDP의 약 70% 이상(2010년 기준)을 차지하고 있다.

2.2. 농업 및 농식품 고용

캐나다의 농업 및 농식품 산업 분야는 약 21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 고용인구의 12.6%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특히, 관련 산업 분야 중 푸드서비스(Food Service) 분야와 식품 소·도매업 분야의 고용 비중이 높고, 여타 관련 산업 분야에 비해 고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캐나다의 1차 농업종사자는 1987~2010년 동안 연평균 1.7% 감소하였다. 1920년대만 하더라도 캐나다의 1차 농업종사자는 약 100만 명으로 국가 전체 고용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 농업생산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캐나다 농업 및 농식품 산업의 고용 구조가 변화하여 2008년 2만 6,695명(전체 고용량의 1.8%)만이 1차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캐나다의 농업 및 농식품 산업 분야별 고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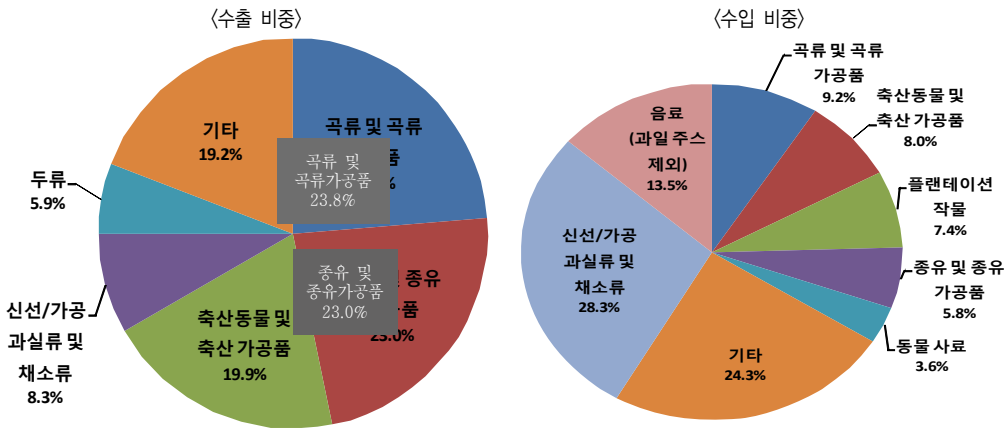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11, An Overview of the Canadian Agriculture and Agri-food System.

3. 캐나다의 농산물 및 농식품 교역 현황

3.1. 농산물 및 농식품 교역

캐나다는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에서 EU, 미국, 브라질, 중국에 이어 세계 5위 규모의 농업 수출 대국 중 하나이다. 2010년 캐나다의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규모는 약 355억 달러 규모였으며, 이 중 곡류 및 곡류 가공품이 2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종유 및 종유 가공품(23.0%), 축산동물 및 축산 가공품(19.9%) 등 일부 품목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다.

그림 5 캐나다의 농산물 및 농식품 교역 현황(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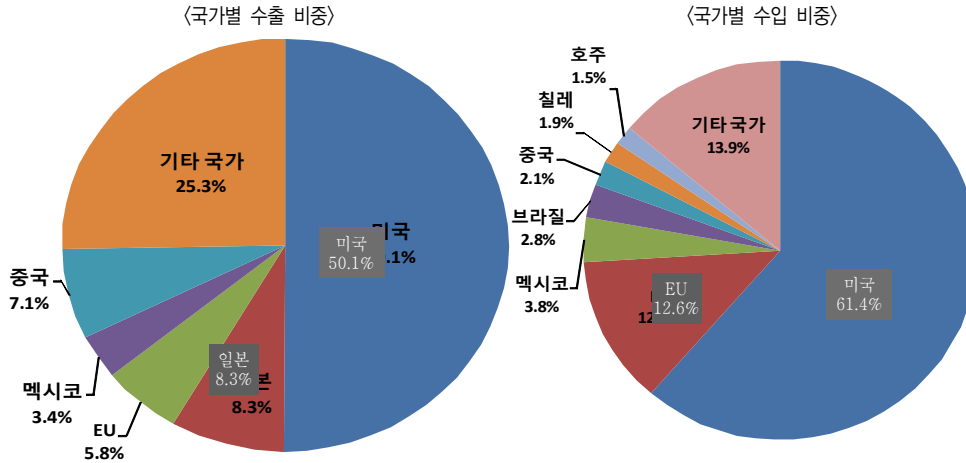
자료: IICA, 2012, IICA Canada's 2011 Annual Report.

캐나다는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대국인 동시에 수입 대국으로서 EU,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6위 규모의 농산물 및 농식품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농산물 및 농식품 수입 규모는 약 28억 달러로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목이 다양하며, 신선/가공 과일류 및 채소류의 비중이 2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시장접근성이 용이하여 전통적으로 상호교역이 활발하였으며, 1988년 미국-캐나다 FTA 체결에 이어 1994년 미국-캐나다-멕시코 간의 북중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하는 등 현재 캐나다의 농산물 및 농식품 국제 교역은 대미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캐나다 농산물 및 농식품 전체 교역액 중 미국과의 교역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캐나다 농산물 및

농식품이 미국으로 수출된 금액은 전체 수출액의 5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수입된 금액은 전체 수입액의 61.4%를 차지하였다.

그림 6 캐나다의 농산물 및 농식품 교역 대상 국가별 비중(2009년)



자료: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11, An Overview of the Canadian Agriculture and Agri-food System.

최근 캐나다 정부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농산물 시장의 판도를 주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브릭스(BRICS) 국가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캐나다와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동시에 주요 수출 대상 국가이기도 하다. 브라질의 경우 쇠고기 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2020년경에는 전 세계 쇠고기 시장의 4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며, 닭고기 수출 시장의 48%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수출 시장 다변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캐나다의 농업 및 농식품 산업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이며, 자국의 경제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캐나다 정부는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와 FTA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FTA협상 진행으로 현재 총 11개국과의 FTA협상이 타결되었으며, 15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³⁾ 특히, 미국, 일본 다음으로 캐나다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 비

3) 캐나다와 FTA협상이 타결된 국가는 NAFTA(미국, 멕시코), 칠레,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페루, 콜롬비아, 요르단, 파나마 등이며, 현재 한국, CARICOM(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도미니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인도, 모로코, 터키 등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중이 높은 EU와는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협상을 진행함으로써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3.2. 주요 농산물 교역

캐나다 대부분의 농가들은 밀과 축산물 생산에 집중되어 있다. 캐나다 농산물 생산량과 수출에 있어 밀과 축산물(특히, 돼지고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기는 하나, 최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카놀라, 시설원예, 블루베리 등의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의 농업 작부체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식품안전 관련 정책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3.2.1. 식량작물

캐나다의 대표 식량작물은 밀과 보리로 2009년 밀 생산량은 약 2,680만 톤으로 단일 작물로는 가장 많았으며, 보리 생산량은 약 952만 톤이었다. 캐나다는 옥수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식량작물에서 주요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대표적 수출 농산물인 밀의 경우 2010년 약 860만 ha에서 재배되었으며, 2009년 수출량이 1,928만 톤으로 이는 세계 3위 규모이다. 대두의 경우 2010년 150만 ha에서 재배되었으며, 이는 1976년 대비 10배가 증가한 규모이다.

카놀라(Canola)는 밀에 이어 제2의 수출품목으로 최근 생산량과 수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 작물이다. 캐나다에서는 전 세계적인 바이오연료 수요 증가로 인해 대표적 바이오매스 작물인 카놀라의 생산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0년 식부면적이 680만 ha에 달하고 있다. 2009년 카놀라 생산량은 약 1,240만 톤으로 2005년 대비 약 0.5% 증가하였으며, 수출량은 약 767만 톤으로 동 기간 약 2배 증가하였다. 카놀라를 재배하는 전체 농가의 2010년 농가소득은 약 56억 달러(CAD) 규모로 이는 밀을 재배하는 전체 농가소득을 초과하는 수치이다.

표 5 캐나다 주요 식량작물 교역 현황

단위: 천 톤

		2005	2006	2007	2008	2009
밀	생산량	25,748	25,265	20,054	28,611	26,848
	수입량	18	27	25	22	106
	수출량	13,925	18,498	17,552	15,781	19,279
보리	생산량	11,678	9,573	10,984	11,781	9,517
	수입량	67	42	53	51	38
	수출량	2,021	1,514	1,950	2,347	1,573
옥수수	생산량	9,332	8,990	11,649	10,592	9,561
	수입량	2,154	1,899	2,579	2,702	1,949
	수출량	265	225	486	883	232
귀리	생산량	3,283	3,852	4,696	4,273	2,798
	수입량	19	24	18	15	16
	수출량	1,354	1,853	2,028	2,159	1,651
대두	생산량	3,156	3,466	2,696	3,336	3,507
	수입량	390	302	213	370	412
	수출량	1,181	1,470	1,868	1,851	2,279
감자	생산량	4,434	5,091	4,999	4,724	4,581
	수입량	195	194	172	165	214
	수출량	434	432	610	633	477
키놀라 ^{주)} (유채유)	생산량	9,483	9,000	9,601	12,643	12,417
	수입량	102	163	202	139	142
	수출량	4,001	5,548	5,364	6,659	7,677

주: 키놀라는 식량작물은 아니지만 캐나다 농산물 중 밀에 이어 수출이 많이 되는 주요 품목으로 표에 추가
 자료: FAO Stat(www.faostat.fao.org)

3.2.2. 원예작물

캐나다는 기후 조건으로 인해 과일, 채소류와 같은 원예작물 생산이 저조해 수출보다는 수입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최근 기술발전으로 인해 시설원예 작물인 토마토, 오이, 고추 등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 최근 소폭 하락하였다. 2006년 캐나다의 시설원예 면적은 약 219만 ha로 1980년대 대비 약 3배가 증가하였다.

캐나다의 주요 과일인 사과를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9년 약 44만 톤의 사과를 생산하였으나 재배면적은 2002년 2만 4,522ha에서 2010년 약 1만 8,377ha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표 6 캐나다 주요 채소 교역 현황

단위: 천 톤

		2005	2006	2007	2008	2009
토마토	생산량	839	817	822	770	458
	수입량	172	182	197	193	192
	수출량	146	142	125	139	153
오이	생산량	191	217	217	212	54
	수입량	43	47	49	46	45
	수출량	50	51	56	62	67
고추	생산량	41	46	43	42	43
	수입량	103	108	108	109	112
	수출량	57	65	75	72	80
딸기	생산량	22	25	24	20	20
	수입량	75	85	87	91	103
	수출량	0.2	0.2	0.2	0.1	0.3
수박	생산량	4	9	10	10	15
	수입량	185	196	200	192	193
	수출량	1	1	1	1	2

자료: FAO Stat(www.faostat.fao.org)

표 7 캐나다 주요 과일 교역 현황

단위: 천 톤

		2005	2006	2007	2008	2009
사과	생산량	409	376	405	427	435
	수입량	159	157	180	166	182
	수출량	54	49	39	42	26
포도	생산량	45	86	72	81	68
	수입량	185	175	186	193	185
	수출량	4	4	4	3	3
배	생산량	11	14	13	10	8
	수입량	72	77	79	69	70
	수출량	0.1	0.3	0.2	0.3	0.1
블루베리	생산량	69	83	77	96	103
	수입량	22	23	19	24	18
	수출량	15	16	13	17	19

자료: FAO Stat(www.faostat.fao.org)

최근 캐나다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사과 생산보다는 상대적으로 생산자동화가 용이하고, 소비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블루베리, 사워 체리(sour cherry)의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블루베리의 2009년 생산량은 약 10만 톤이었으며, 2010년 재배면적은 6만 6,767ha로 2002년 대비 약 1만 6,000ha가 증가하였다.

3.2.3. 축산물

캐나다는 세계에서 곡물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서부 지역의 경우 8만여 농가들이 보리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동부 지역에서는 기후여건에 따라 상당량의 옥수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광활한 농지에서 생산되는 사료용 곡물과 넓은 목초지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의 주요 축산물 중 쇠고기와 돼지고기, 천연꿀은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높으나, 닭고기의 경우 국내 생산량이 소비량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8 캐나다 주요 축산물 교역 현황

단위: 천 두, 천 톤

		2005	2006	2007	2008	2009
쇠고기	사육 두수	14,925	14,655	14,155	13,895	13,180
	생산량	1,464	1,327	1,279	1,288	1,252
	수입량	135	160	215	204	221
	수출량	548	433	413	449	435
돼지고기	사육 두수	14,810	15,110	14,907	13,810	12,180
	생산량	1,920	1,898	1,898	1,948	1,943
	수입량	136	145	170	196	182
	수출량	983	976	934	1,020	1,016
닭고기	사육 두수	160	160	165	165	165
	생산량	1,000	997	1,030	1,041	1,036
	수입량	105	118	139	142	141
	수출량	90	97	126	138	133
양고기	사육 두수	978	894	879	825	808
	생산량	18	17	17	16	16
	수입량	18	20	22	20	21
	수출량	0.3	0.3	0.7	0.4	0.3
천연꿀	생산량	36	48	31	29	32
	수입량	8	5	4	4	5
	수출량	12	14	17	23	12

자료: FAO Stat(www.faostat.fao.org)

캐나다의 돼지고기는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에서 밀, 카놀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2009년 돼지고기는 약 102만 톤이 수출되었다. 최근 돼지의 사육 두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돼지고기 생산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캐나다 육류 생산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2009년 돼지의 사육 두수는 약 1,200만 두이며, 돼지고기는 약 194만 톤이 생산되었다.

캐나다 쇠고기의 경우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총 18건(앨버타 주 13건, BC 주 4건, 매니토바 주 1건)의 광우병(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하여 수출 시장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캐나다에서는 쇠고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식품안전 관련 정책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 BSE 발병을 억제하기 위해 캐나다식품검역원(CFIA)은 연방사료법 규정에 부합하는 가축사료의 제조 및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가축사료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업용 사료 제조사를 대표하는 산업조직인 캐나다동물영양협회는 사료 회사들의 HACCP 원칙에 의거한 사료제조를 권장하기 위해 FreeAssur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상업용 축산사료의 약 70% 이상이 FreeAssure 프로그램의 의거해 HACCP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쇠고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식품안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3년 수입이 중단되었던 한국에서는 최근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었다.

참고문헌

김원태, 2011, “캐나다의 유제품 소비동향과 소비확대사업”, 세계농업 제126호.

채광석, 2011, “캐나다 농업 경영안정 대책 동향”, 세계농업 제126호.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11, *An Overview of the Canadian Agriculture and Agri-food System.*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2012, *Canada's Farm Income Forecast for 2011 and 2012.*

IICA, 2012, *IICA Canada's 2011 Annual Report.*

OECD, 2011, *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1.*

캐나다 통계청 www.statcan.gc.ca

FAO. FAOSTAT www.fao.org

OECD www.oecd.org

UN. UNdata www.data.un.org